

깨달음 보다 더 고귀한 실행하는 기쁨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

중현 지음



“계를 지키고 올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부처님 말씀을 꿰차고 있다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다. 하루 종일 통나무처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듯 계행과 선정과 지혜는 함께 실천해야 한다. 사실 우리 불자들은 일상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잘 살펴 마음에 잡생각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그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게 명상이다.”(본문 중에서)

법정 스님은 ‘종교 생활은 복습’이라고 했다.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종교로 인식하기보다 생활 속 실천을 강조했다. 사실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편견 가운데 하나가 ‘복잡하고 심오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 재세부터 하나의 수행체계였다. 물론 다방면의 정의가 있지만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광주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은 ‘불교는 종교의 외피를 두른 수행 시스템, 즉 수행이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行)을 닦아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요소, 즉 ‘번뇌’로 일컫는 온갖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고 그것이 유기적인 이타행위로 발현되도록 이끄는 데 있다.

중현스님이 펴낸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재해석한 불교 교리서다. 나아가 실행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



광주 증심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시민들이 한가롭게 경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다. 광주의 대표 사찰인 무등산 증심사는 신라 시대 창간 이래 일제 때는 의병활동 무대로, 해방 이후로는 지역의 정신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불교적으로 풀이했을 때 무등(無等)은 ‘모두가 같다’, ‘일체가 하나다’라는 뜻이며 증심(證心)은 ‘마음을 증득하다, 깨닫다, 밝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2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전념했고 30대에는 프로그래머로 변신해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다. 1998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화순 용암사 주지와 ‘월간 송광사’ 편집국장을 지냈다.

중현스님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중심사가 세상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신도들의 고령화, 종교의 쇠퇴와 맞물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생과 호흡하는 불교를 상징한다. ‘중현스님의 행복한 피자가게 운영’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의 포교활동, 인공지는 등 시대 흐름에 발맞춘 불교의 자리 찾기를 고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연유다.

저자는 단순히 불교를 ‘안다’는 관점을 넘어 스스로 체험하고 깨치는 중요성을 설파한다. 사찰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혜 하나쯤 받아오는 곳인데 코로나 이후 사람 없는 절이 무슨 소용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불교는 사찰에도 없고 스님에게도 없다’는 것. 즉 자신이 할 일은 멀리 있는 이들이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신과 대화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언급한대로 법정 스님이 강조한 ‘복습’과 같은 맥락으로 끊임없는 대화, 실천, 연습을 의미한다. 한편 저자는 현재 광주일보 종교칼럼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의 법문’을 펴냈다.

〈불광출판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루키의 자연스레 ‘모이게’ 된 수백장 티셔츠에 얹힌 이야기

무라카미 T-내가 사랑한 티셔츠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재소의 기본, 바다 표범의 키스’, ‘샬라드를 좋아하는 사자’ 등 ‘무라카미 라디오’ 시리즈나 ‘잡문집’ 등을 읽은 이라면 그의 에세이를 즐겨 찾게 된다. 정말 다채로운 주제로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글은, 그 가벼움 속에 나의 모습을 한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묘한 매력에 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의 신간 ‘소설’보다는 ‘에세이’에 더 관심이 간다.

신작 ‘무라카미 T-내가 사랑한 티셔츠’는 그가 소장하고 있는 티셔츠와 그에 얹힌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를 함께 담은 책이다. 책을 읽으며 “이건 무라카미 하루키니까 쓸 수 있는 책이겠다” 싶었다. 일흔이 넘는 나이

에도 여름이면 반바지에 티셔츠, 맨발에 스케치스니커즈를 신는 그라만 말이다.

책은 그가 일본 잡지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으로 소장품 중 마음에 드는 낡은 티셔츠를 펼쳐 놓은 뒤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짧은 글을 덧붙였다. 책에는 100여종의 티셔츠와 열여덟편의 에세이가 실렸고, 말미에는 연재를 했던 잡지사 관계자와 티셔츠를 비롯해 여러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가 함께 담겼다.

그는 “다 듣지 못할 양의 LP, 다시 읽을 일 없을 책과 잡지 스크랩, 연필깎이에 끼우지도 못할 만큼 썩어진 연필” 등과 마찬가지로, 수백장의 티셔츠 역시 ‘모으려고’ 했다가 보다는 자연스레 ‘모이게’ 된 것들이라고 말한다.

책에 등장하는 티셔츠는 대부분 값비싼 유명 브랜드가 아닌, 중고매장 등에서 구입한 것들이다. 여행지에서 갈아입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들도 있다. 1달러나, 1달러 99센트를 주고 구입한 값싸고 재미있는 티셔츠들에는 각각의 사연이 담겼다. 또 기업이 홍보용으로 제작한 티셔츠나 음악을 좋아하는 그가 공연장에서 구입한 셔

츠 등 책에 등장하는 티셔츠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블루스를 라이브로 들으며 초밥을 먹을 수 있는 집 ‘스시 블루스’의 푸른색 티셔츠,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나 비치 보이스 콘서트의 여운을 즐기게 해주는 티셔츠, 보스턴 마라톤의 추억이 담긴 티셔츠는 흥미롭다. 특히 스페인,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의 숲’ 등 그의 작품 발매와 북토크 등을 기념해 제작한 티셔츠도 인상적이다.

그가 티셔츠를 고르는 기준은 디자인과 장르. 레코드 플레이어나 레코드가 들어간 것이나 맥주, 자동차 광고 티셔츠는 자주 구입하는 편이라고 한다. 목 부분이 적당히 늘어난 티셔츠를 좋아하는 그는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무지 티셔츠를 입는다.

좋아하는 레코드도 50달러 이상이면 구입하지 않는다는 그는 “뒤편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은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수집하는 이라면 새겨들을 말이다.

〈비채·1만4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북극에서 온 남자 울릭=‘꾸뻔씨의 행복 여행’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린 프랑수아 톨로르의 두 번째 소설이다. 북극 지방 원주민을 뜻하는 이누이트의 사냥꾼 울릭은 그가 사는 마을이 유네스코 인류문화 유산으로 선정되자 ‘카블루나’라는 나라에 대사 자격으로 파견된다. 작가는 그곳에서 외로운 남녀들의 사랑과 관계를 지켜보며 혼란을 느끼는 울릭의 시선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열림원·1만4000원〉

▲강주은이 소통하는 법=배우 최진수의 아내로 알려진 방송인 강주은이 첫 직장으로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다양한 일터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일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주부로서 직장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일화들을 소개하며 진심을 표현하고 상대가 그것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10가지 생각으로 정리했다.



〈열린책들·1만5800원〉

▲비트의 세계=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일했던 프로그래머 데이비드 아우어바흐는 개인적 경험과 인문학 지식, 풍부한 자료조사를 통해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말한다. MBTI 테스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학, 제임스 조이스,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컴퓨터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하고,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

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해나무·1만8000원〉

▲용감한 육아=행복하고 자립적인 아이를 길러내는 양육의 비밀을 담았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세 딸을 각각 유튜브 CEO, 소아과 의사, 스타트업 기업 CEO로 키워낸 저자 에스터 위지츠키는 기수 위기, 양육학, 빈곤 등 전 세계적인 위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양육과 교육이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라고 전한다. 〈반비·1만7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시모카와라 유미 아기동물 그림책 세트=시모카와라 유미의 대표작 3권을 묶었다. ‘있잖아 있잖아’, ‘누가 누가 닭이었을까’, ‘이리와 이리와’로 구성됐다. 세밀화로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하며,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고 또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말이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0-3세 눈높이에 맞춘 내용이 돋보인다.

〈미디어창비·각3만9000원〉

▲어린이의 왕이 되겠습니다=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여정을 담은 그림책. 폴란드의 교육자 야누시 코르차크가 쓴 ‘마치우시 왕 1세’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왕은 어떤 사람인지, 모두

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혁은 무엇이며 그 대가는 무엇인지 마치우시 왕의 고민을 이 책을 통해 따라갈 수 있다. 〈사계절·1만3500원〉

▲기린을 고발합니다=조태봉 작가가 지면에 발표한 8개의 단편을 한자리에 모아 엮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와 살해를 전면에 내세워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그 아이’는 아빠와 새엄마의 학대로 화장실에 갇힌 아이의 이야기이며, ‘육상 위의 자두’는 삼색고양이의 시선으로 아동 학대의 실상을 그려낸다. 이밖에 ‘누구였을까’, ‘너의 목소리’, ‘닭발 인생’, ‘기린 아는 아이’ 등도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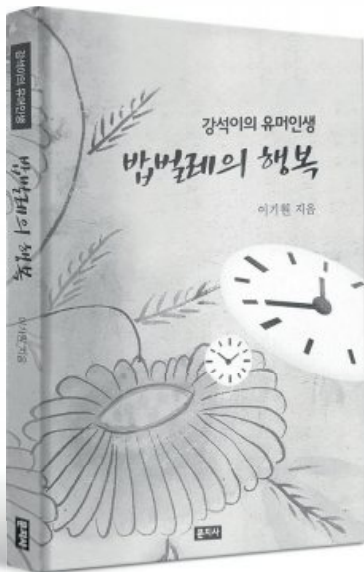
〈청개구리·1만1500원〉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2,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뜨고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